

2. 백제울 ‘씨토쟁이’ 정근형의 쥐눈이콩

나는 지금도 박물관 설립을 결정하고 첫 수집 활동을 나간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박물관에서 가까운 관내 백제울에서 받은 첫 감동 때문이다. 그때 받은 감동은 수집하는 일을 취미 생활처럼 수시로 발길을 돌리게 했고, 수집 방식이 단순히 토종 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토종을 찾는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자 가스를 판매하며 면내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친구가 많은 정보를 주었다. 그 친구가 준 정보 중에 백제울에 ‘씨토쟁이’ 괴짜가 있는데 토종을 어지간히 심는다는 거였다. 알짜배기 토종 전도사라는 것이었다.

백제울은 천방산 아랫마을이다. 천방산은 예산과 아산을 아우르는 금북정맥의 주 분기점으로 그 아래 수십 개 마을이 있다. 그중에 백제울은 천방산의 서쪽 마을로 오 형제 고개를 통해 아산으로 넘어가는 오래된 길 안쪽에 있다. 백제울은 예산에서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아직은 냉랭한 설한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2월 하늘이었다. 우리가 도착해서 그를 찾아온 이유를 밝히자 그 또한 내가 토종이라고는 촌놈이라는 것 말고는 연관 지을 것이 없었던지 적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내가 토종을 찾는다는 것에 반색하며 급격하게 동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는 해방 전에 할아버지가 허 씨네 집성촌인 백제울에 들어 온 타성바지였다.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백제울에서 농사지었지만, 결혼도 못 하고 얼마 전까지 훌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효심이 두터운 촌 형이었다. 그는 손이 투박하고, 허벅지가 굵어 웬만한 경운기쯤은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천상 비탈 밭농사를 짓게 태생한 소박한 농사꾼이다. 그의 순박함은 얼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금은 농사만으로는 힘이 들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고 있다. 그의 소박함은 참으로 희고 얇어 그 속으로 누굴 깨벗길까? 내가 좋아하는 형이다.

-이거 암제나 끄내는 게 아닌디. 동상이나 하니까 한겨울에 여능겨. 알지?

그가 광으로 들어가더니 살강에 올려 있던 막단지를 내렸다.

- 니, 뭐여? 씨를 신줏단지 모시듯 혀?

드디어 막단지를 열자 그가 지켜 온 토종 씨앗들의 보따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씨앗들은 마치 계란 꾼미처럼 짚으로 만든 망태기 속에서 그윽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씩 웃으며 내 놀라움에 거만함을 슬쩍 얹었다. 뿌듯함이었다.

-아녀,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능겨.

그는 씨앗을 항상 충분히 남겨뒀다. 차 뒷좌석에는 항상 씨앗이 실려 있었고, 아는 사람이 모종 한 포기 꽃을 밭만 있으면 씨를 나눠 줬다. 지나다가 혹시라도 나눠 준 종자가 교잡돼서 변했으면 다시 갖다주기도 했단다. 박물관에도 나눔 행사를 하지만, 씨만 달랑 나눠주는 우리 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의 나눔은 A/S까지 해주었다. 그럭저럭 그가 나눠준 집들이 꽤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씨토쟁이’였다.

- 와!

말 그대로 막단지 속엔 뭉텅이로 토종 씨가 들어있었다. 콩의 종류는 서리태부터 쥐눈이콩까지, 오이, 호박 더불어 동부, 팥까지 밭에 심을 수 있는 씨들은 모두 있었다. 그중에 쥐눈이콩을 한 움큼 퍼내더니 손바닥을 편다.

- 요건, 쥐눈이 콩인디. 우리 집 보물이여. 약이여. 팔 때도 뒷박을 팔지 않고 무게로 팔어.

그는 쥐눈이콩을 약이라 생각하고 심는다고 했다. 비상약이었다. 배 아프면 쥐눈이콩 간장 먹고, 열나고 머리 아프면 볶은 콩을 먹는다고 했다. 실제로 고서엔 쥐눈이 콩을 약으로 쓰였

다는 기록도 여럿 보인다. 동의보감, 명의별록에서는 해독제, 본초강목에선 어혈과 풍열을 다스리는 데 쓰인다 했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그렇게 씨앗을 어금니 아끼듯이 하던 그도 어느 핸가 다락에 두었던 씨앗을 서생들에게 모두 잃은 적이 있었다. 그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 들녘에 남은 곡식들이 없자 쥐들이 모두 인가로 들어와 곡식을 훔쳐 갔는데, 마침 밀거니 하고 한 번도 다락의 망태기를 열어보지 않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남은 것은 갈 장마가 길어 잘 마르지 않은 채 두어 벌레들이 모두 바숴놨으니 쓸 씨앗은 아예 없었다고 한다. 물론 보물로 여기던 쥐눈이콩도 남아있는 게 한 조막도 안 되었다.

그의 모든 씨앗은 아버지한테서 왔다. 쥐눈이콩도 마찬가지였다. 고된 탄광 일을 하다 얻은 천식 때문에 기침이 심한 아버지는 쥐눈이콩 삶은 물을 늘 마셨다고 한다. 그동안 다른 씨앗들은 다른 종자로 바뀐 경우는 있어도 쥐눈이콩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각별했다고 한다.

그런 종자를 잃었으나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믿거나 그동안 깔아놓은 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회수 작전에 돌입했다. 그동안 그가 나눠준 집들을 찾아다니며 종자를 되돌려 받기 시작했다. 이웃들과 친구들은 물론 기억을 찾아 멀리는 온양까지 갔고, 시장에서 내다 팔았던 장사꾼까지 찾아 나섰다. 어떤 사람은 그가 준 토종 종자를 잘 간직하며 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이 또 씨를 잃어버리고 남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집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말할 때 자주 쓰였던 n차 감염처럼, 때로는 그도 n차 나눔을 한 사람까지 들쑤셔가며 찾곤 했다. 그때 그는 토종 씨 때문에 송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송악까지 가서 기어이 찾은 쥐눈이콩. 그는 자신이 나눠 준 토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 오! 요건 맞어. 맞다. 요 뺀들거리는 게 요 속에 아주 찌그만 별이 있응께. 요것이 내 쥐눈이콩이 맞어 임. 자고로 약콩은 이래야 되는 뱈이여.

아니 이게 자기 콩이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안담? 그는 나의 의문을 개의치도 않았지만, 여하튼 그렇게 찾은 쥐눈이콩이었다.

그가 말한 쥐눈이콩들이 방바닥에 쏟아진 채 맹골맹골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쥐눈이콩이나 별다를 게 없었다. 그가 열심히 설명은 하지만 당시에 나는 도통 알 수 없었다. 내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씨앗은 하나의 생활이요, 가족이었으니 자신의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정도였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만의 씨종자 지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어릴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어머니의 성주단지를 생각해 냈다. 성주단지는 오롯이 어머니의 영역이었다. 사나운 아버지도 그것만은 손을 대지 못했고, 어린 자식들도 그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 냈다. 아마 어머니의 가족을 위한 기원을 빌린 것은 아닐까.

씨앗을 바싹 말린 후 제일 실한 것을 골라 보자기로 싸고 짚으로 벗짚 꾸러미에 계란 싸듯이 옹 맨 후 막단지에 넣어 광에 보관했다. 신성한 성주인 종자를 표시하기 위해 그 막단지 위에 또 이영을 엮어 터줏가리를 덮어 보관했다 한다. 이것을 봄에 한 번 꺼내는데, 새 꾸러미를 넣어야 이듬해 꺼내 써 다시는 씨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막단지에 종자를 보관하게 된 연유였다.

- 뭐 그렇게 악착같이 혀? 편하게 종묘상 가서 사다 쓰면 되지?
- 옛날엔 말여. 백일 떡도 요놈으로 했고, 돌 팥단지, 갈떡, 장사집 사자밥도 요놈으로 했응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 같아 보이지만, 같이 살아온 사람마다 다르고 지켜온 집안마다 다르고 자라온 마을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에게 토종 씨앗은 사람들의 관혼상제, 백제율의 관습이나 풍습 등 모든 곳에 함께 있어야 할 대체 못 할 문화의 일부였다.

- 아예 텃고사라도 지내지 그랬다?
- 집구렁이라고 아는감? 이 집구렁이는 집주인이 이삿짐을 싸면 쌀독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삿짐과 함께 이사를 가거든. 왜 쌀독으로 들어가는지 아는감? 그곳에는 씨구신이 있거든. 사람들이 다 벼려도 씨구신은 버리지 않거든. 집구렁이는 씨구신을 따라가려고 뒤주에 들어가는 거. 그래야 주인을 잊지 않거든.

이제는 쥐눈이콩 간장 담글 사람도 없고, 배가 아프면 읍내 가서 약을 사 먹는 정근이 형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빼먹지 않는 것은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 벌목 산일을 나가기 전에 아랫목에 앉아 똘똘하고 눈알이 뺨질뺀질한 쥐눈이콩을 고르는 일이다.